

도로변 불법 현수막 넘치는데...처리 못해 '골머리'

광주 재활용업체 창고 포화상태...반입금지 요청

5개 구청 수거 중단...1월 중엔 재반입 어려울 듯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광주시·자치구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받아 재활용해 공급·판매하는 현수막 재활용업체가 일선 자치단체에 '현수막 반입 금지'를 통보하면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아 적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구청 수거 단속반원들은 수거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가 하면, 수거량을 줄이는 등 변칙 운영하는 현경이다. 우선 수거했다가 빈 공간이 창고에 무작정 쌓아놓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다. 끊이질 않는 '불법' 현수막의 물량 공세가 공공기관 단속 업무를 마비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광주지역 현수막 재활용업체인 H업체로부터 '불법' 현수막 반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해당 업체 보관 창고(최대 적재량 400t)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현수막 수거·적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쏟아지는 물량으로 더 이상 반입할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H업체는 지난해 9월 전만 해도 각

자치구에서 하루 평균 1t 화물차 2~3대 분량의 불법 현수막을 받았지만 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에 돌입한 뒤 반입 물량이 세 배 이상 늘어난 9~10대까지 급증했다.

H업체는 각 구청에서 반입된 불법 현수막을 어촌 양식용 로프와 산업용 포장로프·장바구니·마대·건설용 안전로프 등으로 재활용해 공급·판매한다.

H업체 반입 금지 요청으로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의 수거 업무는 사실상 '울 스톱' 됐다.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더라도 공터 또는 창고, 단속 화물차 적재함에 쌓아놓는 것이 아닌 달리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구청 관계자를 설명이다.

현재 광주시와 각 구는 민원인 신고로 출동,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창고 등에 무작정 쌓아두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공간 부족으로 처치 곤란한 지경이다.

현재부터 재반입이 가능할 지 조차 몰라 자칫 불법 현수막 수거 업무가 당분간 '방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H업체 측은 직원 2명이 하루 평균 1t 화물차 두 대 분량의 현수막을 해체해 재활용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재반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더미 16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현수막 재활용업체인 H업체 보관창고에 불법 현수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H업체 대표는 "지난 2011년 초 문을 열었는데, 보관창고가 딱 차서 반입금지 요청을 한 적은 처음"이라며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내걸린다는 것

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도 "우선, 마대 제작 업체에 수거 현수막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도 조만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처리 방안 마련하느라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능장재판 14년 "법원이 너무해"

광주 금호시영아파트 하자 소송...주민들 원성

아파트 시실 하자 관련 소송이 무려 14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상한)는 최근 광주 금호시영아파트 주민 226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주민들의 피해를 최초 아파트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호시영아파트의 관리권은 광주도 시공사로 이전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6월 소장이 접수된 후 14년만의 일이며, 앞으로도 재상고나 진행될 수 있다.

소송이 14년간 진행되면서 소송에 참여한 주민도 664명에서 226명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액도 100억여원에서 77억여원으로 감

●재판 14년 끄는 동안...

관리권 광주도시공사로 소송 주민 664→226명 청구액 100억→77억 법관들 인사로 바뀌어 일부 승소...재상고 검토

소했다. 소송은 2003년 9월 1심 선고(원고 일부 승소)와 2009년 9월 항소심 선고(원고 패소),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계속돼 왔다.

하자 감정 기간 소요,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참조, 법관 인사 등이 판결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광주고법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기사 면허 불법취득 15명 검거

목포해경, 승선경력 등 허위

목포해경은 16일 허위 승선경력을 만들어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혐의(선박직원 위반 등)로 한모(42)씨 등 선원 15명과 허위 승선 경력을 작성해 준 김모(49)씨 등 선주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 5t 어선을 보유한 김모(49)씨 등 선주 15에게 부탁, 수기로 작성된 허위 승선경력증명서를 제공받아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선박조종 면허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2t 이상 선박 등을 2년 이상 운항한 승선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형선박직무교육(3일·

18시간)을 이수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하면 25t 미만의 낚시배, 어선, 유람선 등의 운항이 가능하다.

해경조사 결과 평소 낚시꾼들을 자신의 1t 어선에 태워주는 일을 했던 한씨는 면허갱신기간이 다가오자 필기시험만 합격해놓고 직무교육을 받는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부분 양식이나 낚시업에 종사하는 30~70대 어업인들이 직무교육을 피하기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쓰리'의 아베 규탄

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성인연극 '비노기와 미쓰리' 출연진들이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통 앞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아스쿠니신사 참배와 노다 전 총리의 망언을 규탄하는 퍼

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배임 혐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점유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형수

"나는 안보고 카톡만..." 소개팅女 전화기 빼앗고 뺨 때려



○...소개팅 상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양동 모 커피전문점에서 박모(여·21)씨의 휴대전화

를 빼앗은 뒤 전원을 끄고, 이를 제지하는 박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소개팅으로 두 번째 만난 사이인데, 박씨가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앞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만 하고 있기에 찾기에 뺨을 때렸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편입생 모집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의외	정원의외
인문	신학과	6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1	-
사범	유아교육과	1	1	2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8	-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5	-	-
	총계	28	2	2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4. 1. 6(월) ~ 17(금)
·전형일 : 2014. 1. 23(목)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덕지사로 3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격중얼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브랜드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